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16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16
2021.05.16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5.16

1. [조선인이여, 민주의집을저라]

대한민국의 호감도가 미얀마에서 실시간으로 쫓겨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미얀마군부정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들의 편에 섰다고, 같은 역사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정치인들과 이를 지지하는 깨어있는 신분들은 말한다. '광주'가 떠오른다고. 그들에게 '80년 광주' 정신을 떠올리며 그들을 돕자고.

영광이다.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린 다음, 바그다드 극장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는 어벤저스를 상영하는 자유의 제국, 민주주의의 수호자 미합중국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서 말이다.

웃긴 일이다. 광주 항쟁은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호감도를 올리기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폭압적 정권에 맞서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닌, 정면으로 맞서 투쟁했던 역사의 한 현상이다. 국가 권력의 폭압이 민중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광주 항쟁은 어느 새 미얀마 민중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저지른 대한민국이란 제국주의 국가의 온갖 착취와 억압을 모조리 덮어버리는 기제로서 말이다.

우리는 확신한다. 광주 민중 항쟁은 대한민국 국가 권력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대한 제국주의의 전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이다. 모든 착취와 억압을 '광주'라는 단어 하나로 모조리 덮어버리려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브랜드이자 제국주의 세력에 분노를 표한다.

그리고 빨아 먹을 경제적이윤은 다 빨아 먹고, 이젠 광주 인민 대중의 시체를 팔아 호감도까지 얻어 내려는 대한민국의 제국주의적 문화 침공에다 시금경의를 표한다.

조선인이여, 민주의집을저라!

”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다’ 미얀마에서 높아지는 한국 호감도” :

<http://naver.me/xrPentUg>

2. [이스라엘은 학살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7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추방과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항의하던 팔레스타인 민중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폭력 사태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가 계속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고 좀더 점잖게는 양측의 폭력 자체를 촉구한다며 위선을 떨고 있으나 이 사태의 원인은 명백히 이스라엘에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과 착취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팔레스타인인, 아랍계에 대한 차별과 정부, 경찰 권력의 강압적인 태도는 물론이며 가지 지구에 장벽을 설치해 아파트 헤이트 정책을 시행하는 가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내쫓고 유대인 정

착촌을설치하는등제국주의적정책을펼쳐왔다. 그것이이번사태의진정한원인이다.

현재사태는단순한양쪽의무력충돌정의될수없다. 침략자이자점령자이며압도적인무력을보유했고제국주의후원자들의후원을등에업은이스라엘의인종청소학살이며이에저항하는팔레스타인인들의항쟁이다.

이스라엘은가가지구에서의학살을즉각중단하라. 정착촌을철회하고팔레스타인인, 아랍계에대한모든차별정책을중단하라.

” 이스라엘, 하마스무력충돌 7 일째…최소 159 명사망”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

3. [소갈비찜레시피]

2021 년한국에는독특한인터넷문화가하나있다. 웹툰을보다가작가가맛이가버린전개를보여주거나 (ex. 늑대라거나광어라거나달팽이라거나) 할경우, 그웹툰의댓글란을자신의메모장으로재활용하는문화다. 대표적으로많이들활용하는내용은바로소갈비찜이다. 할말은많은데그마저도아깝다는, 그런항의의표현이다.

이번중앙일보의기사를보며기자에게물고싶었다. 5.18 관련해서글은쓰라고데스크에서지면을맡기기는했는데쓸의지도, 노력도없었던것아닌지. 아니시라면이자리를빌어” 중앙일보” 라는극우일간지의이름에가진선입견에대해그랜질로사과를드리겠다. 근데맛을것같은데?

여튼이에대한평은시대에걸코뒤떨어질수없는, 대중과늘함께하는아나키스트의숙명을받들어아래와같이하기로한다.

☆ 소갈비찜레시피 ☆ 주재료: 갈비 600g, 당근 20g, 은행 10 알, 밤 10 개, 파 1 대, 양파 50g

양념장재료: 간장 3 큰술, 설탕 2 큰술, 육수 12 큰술, 다진생강 1 작은술, 깨소금 2 큰술, 청주 ¼ 컵, 다진마늘 3 큰술, 참기름 1 큰술, 후춧가루약간

만드는법

갈비는사방 5 cm크기로썰어기름기를제거한다.

기름기를없앤갈비살에갈집을낸다음찬물에 30 분 ~ 한시간쯤담가핏물을빼주고, 흑시모를절단과정에서섞인뺏가루나뺏조각을제거해준다. 이핏물빼는과정을숙성으로하고싶으면, 한번끓여데치는거로대체해도되긴된다.

끓는물에핏물을빼갈비와토막낸양파·파를넣어속까지익을때까지삶아낸다. 중간에젓가락으로고기를찔러보아핏물이나오는지확인한다. 핏물이나오면고기가덜익은것.

고기가익으면체에받친다. 이국물은걸러서저분한것을제거하고양념장의육수로이용한다.

육수에간장·설탕등양념장재료를섞는다.
삶아낸갈빗살에양념장을반만넣어끓이고, 도중에마늘·파·양파를넣고조린다.

조림국물이반쯤으로줄면반정도만익힌당근·밤과은행, 나머지양념장을넣고조린다.

”5.18 을기억하는여행법, 광주’ 주먹밥’ 투어” :

https://mnews.joins.com/article/24059076?utm_source=facebook&ut

4. [우리는아나키스트대통령을원한다]

유력대권주자이신윤석열씨가 5.18 은가슴속에현재도진행중인살아있는역사라며, “어떠한형태의독재와전제든이에대한강력한거부와저항을명령”하는것이라고하시었다.

명령의주체가누구인지는잘모르겠다. 광주의영령들이명령하시는것인가? 윤석열씨가뭐랄까, 박수무당이셔서, 영령들의명령을들으실수있는지는내버려두고, 광주의영령들이우리와의소통하신다면, 우리에게“명령”하는것이아니라, 함께하자고말하며앞서서나가실것이니, 그것은아니라하자. 아니면혹시설마본인이명령하는것인가? 선생님아직대통령아니세요…는제쳐두고, 심지어대통령이라도, 인민대중에게“명령”할권한을가지고있지는못한것이니, 그것도아니라치자.

그러니대충 < 광주인민봉기 > 의정신이정언명령같은것을만들었다고치자. 하지만, 인민들에게무언가를“명령”한다는것은, 결국독재이고전제가아닌가? 독재와전제에맞서라는독재자와전제군주의명령에맞서라는독재와전제… 이게우로보로스인가뭔가하는그건가?

혼란은제쳐두고, 윤석열씨가반드시, 정말로반드시, 대한민국이라는국가의수반이되어주셨으면좋겠다. 모든국가는독재정부다. 그리고우리는당신이오늘한말을기억하고있겠다. 그리고당신의“명령”에따르도록하겠다.

” 윤석열”5.18 현재도진행중…어떤형태독재든저항해야”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

탕탕절호외. [탕! 탕! 탕!]

각하! 정치를좀더대국적으로하십시오! 아, 물론재인이너도.

” 박정희전대통령묘소참배하는김부겸신임총리” :

<http://naver.me/xAt6E7mP>